

우도 신궁: 토끼 석상

우도 신궁의 경내 곳곳에서는 제신들의 사자(使者)라고 여겨지는 토끼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기원은 없지만, 신사의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의 첫 글자 ‘우’와 토끼를 의미하는 일본어 ‘우사기’의 ‘우’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연관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. 지역의 구전에 따르면 신사 주변의 숲에 수많은 토끼가 살았다고 하는데, 지금은 한 마리도 볼 수 없습니다.